

강진군 2년 연속 '억대 부농' 전남 1위

농가수 대비 가장 많아... 고소득 농업인 25% 증가 역시 1위

농수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 과감한 농업분야 예산투자 효과

강진군이 전남 지자체 가운데 농가수 대비 억대부농이 가장 많은 군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남도가 발표한 지난해 1억 원 이상 고소득 농업인 조사결과 강진군이 538농가로 지난해 406농가 대비 25%가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농가수 대비로도 9.6%를 기록해 전남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강진군의 고소득 농업인 증가수는 전라남도 전체 증가 220명 대비 60%를 차지했다.

억대부농은 품목별로 수도작이 256농가로 가장 많았고 축산농가, 과수, 채소 농가 순이었다.

농산물시장개방 확대와 FTA 체결, 이삼기후, 농산물 가격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농업인 증가 주요 요인은 규모화 · 조직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강진 방문의 해를 통한 농수특산물 직거래 등 안정적 판매처 확보에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강진군은 2017년 강진방문의 해를 통해 강진정지축제, K-POP콘서트 등 12개의 축제를 추진해 256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고 서울 경기권을 포함해 전국에서 13만2천명이 초록민을 직거래지원센터를 통해 강진농수특산물 직구입해 79억원의 판매성적을 거뒀다.

대한민국 최고 농촌마을 감성체험 프로그램인 푸소(FU-SO)체험은 지난해 8천100여명이 다녀가 총 5억 2천4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농의소득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푸소체험은 경제적인 가치를 넘어 다른 사람과의 소통, 따뜻한 정서의 교류라는 더 큰 가치를 창출해오고 있다.

강진군은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강진원 군수 취임 이후 해마다 농업예산을 큰 폭으로 늘려 왔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88억원이 증액된 1천42억원(32.2%)을 농업예산을 편성했다.

강진군은 2018년 농업소득 배가 원년의 해, 농업예산 1천억원 시대를 맞아 잘사는 농업인, 살맛나는 농촌건설을 목표로 고소득 농업인 육성 및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예산을 50억원 증액해 가구당 약 7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여성농업인 행복비우치 지원 확대, 맞춤형 벼농사와 이모작 재배 지원, 고소득 시설원에 기반 구축, 강진형 로컬푸드 개설 등 농업인 소득향상 및 농업복지향상을 도모한다.

군 버 전체 재배면적의 병해충 방제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및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신기술 도입과 돈 되는 원예특화작물 도입, 맞춤형 현장 기술 지원 등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농업기술을 연중 교육 및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함께 한우 송아지 브랜드 3천두를 육성하고 수입개방 대응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개량 및 한우등록 지원, 품질고급화 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양질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및 각종 축산시설 현대화 등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 방문의 해, 초록민을 직거래지원센터, 푸소 체험을 포함한 감성문화마케팅을 통해 강진군의 주요정책들을 군민들과 함께 성공시켜왔다"면서 "2018년 농업소득 배가 원년, 강진만 A로의 초대라는 생필이 정책 역시 군민과 함께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역의 주력 산업인 농림축수산업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지난해 12월 전남에서 5번째로 개관한 곡성 작은영화관이 운영 한 달째를 맞아 성공리에 연착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곡성군이 28일 밝혔다.

'개관 한 달' 곡성 작은영화관 1만 관객 기대...성공적 연착륙

지난해 12월 전남에서 5번째로 개관한 곡성 작은영화관이 운영 한 달째를 맞아 성공리에 연착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8일 곡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2일 개관 이후 현재까지 누적 관객은 6278명에 이른다. 성탄절과 신년 연휴 특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신 개봉작을 보기 위해 도시로 나가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고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영화 관람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한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2개 상영관 96석밖에 되지 않지만 인소문이 퍼지면서 주말과 평일 내내 남녀노소 불문하고 관

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진짜로 매일 상영하네요", "광주처럼 똑같이 영화가 들어오네요" 등의 관심을 보이며 영화관 개관을 반기워했고 꾸준한 관람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다음달 설 연휴를 전후로 1만명 돌파도 가능한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영화관 개관으로 가족, 연인 간 함께 할 수 있는 장소가 제공됐고 더불어 단체의 회식문화 개선 등에도 이바지해 지역 경제 활성화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곡성=김광휘 기자



전남도게이트볼협 이사회 및 정기총회

시·군 협회장 등 80여 명 참석 결산·올 예산심의의결

전라남도게이트볼협회(회장 장귀남)가 지난 19일 영암군협회에서 2018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영선(수석부회장)을 비롯해 김종필(부회장) 이문재(부회장) 이사로는 이수열(이사)의 10명 등 20여 명이 김일국(사무국장)주제로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의의결 및 회계감사와 행정감사 실시 결과보고를 마치고 201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를 의결했다.

이어 28일에는 전남지역 시·군 협회장, 부회장과 사무국장 등 전문위원까지 약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전라남도게이트볼협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성황리

마쳤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18년도 회원확보와 게이트볼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것을 결의, 학교체육을 시행하고 있는 기존학교 외 5개 학교를 더 참여시킬 계획을 발표하고 그동안 소홀했던 장애인 회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전남게이트볼협회는 올해 신입회원 확보 및 지도육성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영암군청 담당부서장이 회의에 참석해 실내 게이트볼구장 시설과 전남도게이트볼협회 사무실 준공에 대해 설명하고 오는 10월 준공을 약속하기도 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목포시, 해상케이블카 개통 중간 점검

연계 관광사업 · 야관 경관조명 · 교통 대책 등 논의



목포시가 지난 25일 보고회를 갖고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대비해 각 부서별로 추진 중인 사업을 중간 점검했다.

시는 관광, 교통, 도로, 도시경관 등 14개 부서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해상케이블카 연계 사업을 보고하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해상케이블카와 관련된 주요 사업은 연계 관광사업, 관광객 유치에 위한 마케팅, 야간 경관조명, 교통시설물 설치 및 교통분산 대책, 도로시설물 정비 등이다. 시는 올해 예산이 확보된

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해상케이블카 연계 사업은 시민과 관광객이 수긍할 수 있도록 예술성이 가미해 추진해나갈 것이다. 지금 해상케이블카가 개통돼 운행 중이라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비책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상케이블카는 현재 승강장 3개소 및 메인타워 공사를 진행 중 오는 8월 준공 예정이다.

사업은 적기에 산을 투입해 시 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해

여수시, 결혼이주여성 위한 한국어 · 방문교육

90명 대상 12월까지 운영

여수시가 결혼이민자 등의 국내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시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여수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집합 한국어 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 대상은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 등 90여 명이다.

교육은 수강생의 수준에 따라 정규과정과 심화과정으로 운영된다. 정규과정은 배치평가를 통해 1~4단계, 심화반은 기초탄탄반·시합대비반·국적취득 인터뷰반으로 나뉜다.

지난 2006년 시작된 한국어교육은 지난해까지 76명의 한국어능력 자격증 취득자를 배출했다.

지리적 요건, 임신, 출산 양육 등 개인 사정으로 집합교육을 받기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도 운영된다.

방문 교육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부모 교육, 자녀생활 교육 등이 1:1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다.

한국어 교육은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중도입국 자녀, 자녀 교육은 만3~12세 다문화가족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다. 부모 교육은 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등 생애주기별로 1회씩 진행된다.

집합 한국어교육과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을 원하는 결혼이민자 등은 여수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061-659-5432)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가 집합 한국어교육과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을 통해 국내 생활에 잘 적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중앙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풍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화순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